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일상의 놀이터로 남아주길

아주대학교 윤현진

학회창립 50주년을 맞아 회원님들의 정성으로 꾸러지는 50년사 발간에 저도 조그만 자취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글을 쓰는 지금 설레면서도 마음 한편에 드는 부담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글을 써야 후회가 없을지 고민하는 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얼마 전 재미로 봤던 MBTI 성격유형 검사에서 받은 INTJ 결과가 떠올라 혼자 피식 웃음이 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지면을 빌어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에 그간 마음에 담아 두었던 고마움을 고백할까 합니다. 그때부터였나 봅니다. 학회와 제 인생이 궤를 같이하게 된 것이. 2003년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태어나 처음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이 자리하신 연말 송년회에서 긴장감에 떨며 시상대에 올랐던 일이며, 격려의 박수 소리, 상장에 또렷한 제 이름까지... 보잘 것 없는 평범한 학생에서 자신감 넘치는 과학도로 탈태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처지가 바뀌어 학회에서 학생들에게 시상하는 자리에 있게 된 지금, 어느 때보다 학회활동에서의 소중한 경험들과 기억들을 학생들에게 심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실험하느라 지친 일상에 학술대회 참가는 MT 이상의 신나는 일탈이었고, 연사와 청중 간 건설적인 논쟁은 동참하고 싶은 학구열을 부추겼으며,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교류는 평생을 같이 할 동료를 찾는 재미를 안겨주었습니다. COVID-19로 정상적인 학회활동이 잠시 주춤했으나, 큰 고비를 넘긴 지금, 학회창립 50주년을 맞아 더욱 번성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저는 학회가 모든 회원들의 놀이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잘못되면 큰일 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일상 으로부터의 소심한 탈출구로서 학회가 빛나길 바랍니다. 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논어의 한 구절을 빌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학회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간사로서, 분과위원으로서, 학회 발표자로서, 학회 참가 학생으로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부담감을 내려놓고 즐길 수 있다면 어떤 고비 앞에서도 곳곳하게 헤쳐나갈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놀이터라는 측면에서 학생들을 위해 학회에 바라는 바를 조심스럽게 내밀어볼까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수채 소리를 들었는데 대학생이 되더니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학부모님들이 심심치 않게 하십니다(저도 되새겨보면 대학생 때 공부 빼고 다 한 것 같은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친구들을 볼 때면 천편일률적인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체계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든 공부하는 재미를 찾아주려 고민을 해봅니다. 대학원생들에게는 학회가 공부하는 놀이터로서 기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때로에 학회로부터 받은 선물 같은 소중한 경험들을 우리 학생들도 겪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토론의 장이나 학생들이 만드는 학술 프로그램과 같이 학생들 간의 교류의 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속에서 과학도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 동료애를 함께 배우기를 희망합니다.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와 궤를 같이 한 저의 지난 20년은 제가 학회에서 배우고 느끼며 자랄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 동안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후배들과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라는 놀이터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꿈꿔봅니다.